

기고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최근 카드 배송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카드 배송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유도하고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해 휴대 폰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다.

이 과정에서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과 협박이 이어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안내

1.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안내 문자 발송
2. 카드 배송원이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준다며 가짜 번호 안내
3. 전화를 걸면 카드사 직원 사칭범과 연결
4. 휴대폰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5. 설치 이후 금융정보 탈취 및 금전 요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방법 및 행동 요령

1.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은 의심부터 하십시오. 카드사는 고객에게 먼저 카드 배송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2.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카드 뒷면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보이스피싱범은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제공해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3. 문자메시지에 기업로고, 안심마크, 카카오표시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보이스피싱 메시지에 공식 로고나 인증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카드사 및 공공기관은 절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 또한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라디오 공익광고, 카드사 ARS 멘트, 팝업 및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채널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특히 60대 이상 여성 대상 맞춤형 안내 강화, 배송 시스템 점검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카드업계에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경각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박민영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찬	편집국장 박진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부700원

《조선왕조실록》에 김처선(金處善)이라는 내시(內侍)가 등장한다. 이 사람은 단종 때부터 연산군까지 5명의 왕을 섬긴 최고위 내시인 판내시부사 겸 상선(尙膳) 자헌대부(宗2품)을 역임한 조선의 의인 환관이다. 당시 환관으로 등록되면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거세되기 때문에, 대다수 아내가 없는데, 이 사람은 서 씨라는 아내가 있었고, 양자 아들 1명을 두었다.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전교수



쿠데타 막는 3명 영관장교의 거룩한 리더십

容舞)는 풍두무(豊頭舞)로 이름을 바뀔 정도로 압박당함은 물론 그의 양아들 이공신(李公愼)도 죽임을 당했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다. 부인 서 씨와 며느리를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노비로 보냈다.

이런 슬픈 역사를 접한 후세 사람들은 왕의 불의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삼고, 어떻게 처신해야 정의로운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위법 계엄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육사(陸士) 출신이 주도적으로 감행했지만, 비육사 출신 몇몇 장교들의 예리한 판단력과 결단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셈이 되었다.

그들은 비육사 출신으로 조상헌 대령(학군), 김문상 대령(3사), 김형기 중령(간부사관) 3인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먼저였기에 난국으로 치달을 뻔한 상황을 안정 국면으로 전환시킨 의로운 장교들이다.

여러 매체를 통해 간단히 정리하면, 조

상헌 대령은 1공수 여단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 못한다!”라고 했다. 왜냐하면 군인은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명령을 수행해야 하며, 명령은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의 사명에 귀결해야 하는데, “저희에게 준 명령이 그랬습니까?”, “정당한 명령이었습니까?”라며 윤 대통령 면전에서 따지며 거침없이 증언했다.

다음은 김문상 대령은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이었다. 특전사 담당자로부터 국회에 헬기 투입에 따른 허락을 요구했다, 사유를 묻자? 말할 수 없다며 빨리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대령은 여기저기 확인했더니 답변을 얻지 못했다. 결국 육본에 직접 전화하여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허락을 받은 후에 헬기 투입을 허용했다. 이렇게 해서 지연된 시간이 40여 분이였다. 이때 국회에서 계엄이 이미 해제된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특전사 1공수 예하 대대장이었던 김형기 중령은 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답을 넘어 본관으로 진입의

원들을 끌어내라!”라는 대통령 지시를 직속상관 통해 전달받았다. 김 중령은 부당한 명령임을 인지하고 항명죄를 각오하면서 부하들에게 입무 실행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법정에서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해 왔습니다.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용기있게 진술했다.

이번 12.3 불법 계엄령은 육사 출신 현역 지휘관과 예비역 장군으로 사전 계획에 의거 일인자 실패한 내란으로, 국민은 육사의 존재가치와 리더십에 회의를 품고 있다. 반면, 비육사 출신 장교들의 현명한 리더십으로 국민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한 법정에서 소신 있게 계엄에 따른 부당성을 증언하고, 조선시대 김처선 환관처럼 팩폭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세 명의 장교의 투철한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또 하나만 사용하는 ‘거룩하다’ 용어를 3명의 영관장교에게 ‘거룩한 리더십’을 붙이고 싶다.

이제까지 육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보다 자기들끼리 서열 만들어 정보를 독점하였고, 평소에 진급과 요직을 다 독식해 버린 결과물이 12.3 위법 쿠데타이다.

이제 세 정부가 들어섰다. 육사와 비육사의 재편성과 공정한 출신별 진급과 복지, 교육 분야 등 획기적인 개혁을 이루어 선진 국방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오늘의 운세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음력 5월 9일)

<p>48년생 뜨겁고 감동인 눈물이 흘러간다. 60년생 든든한 응원군이 날개를 달아준다. 72년생 필요한 건 자신감 용기 백배해보자. 84년생 직책과 임무 계급이 올라간다. 96년생 고군분투 노력의 결수로 매겨진다.</p>	<p>49년생 길었던 부진에 미루리가 온다. 61년생 계절은 모질게 뒤를 남기지만, 73년생 눈으로 보여져도 속단은 금물이다. 85년생 반기를 뒤로하고 속세부터 해보자. 97년생 포기하지 않았던 면전에 성공한다.</p>	<p>50년생 옛날의 기대수습을 서두르자. 62년생 모두의 부러움, 상은 덤으로 온다. 74년생 잘못된 방식이다. 지책을 들어보자. 86년생 재미없는 공부한 면서 배워보자. 98년생 어떤 위치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자.</p>
<p>51년생 관심없다 표시 미련없이 돌아서자. 63년생 손해다 싶으면 보따리를 싸보자. 75년생 답답했던 살림에 여유가 다시 온다. 87년생 잘나 의 변화 새로운 향해가자. 99년생 이만큼 잘한다, 무용담이 펼쳐진다.</p>	<p>52년생 오래된 이웃들 웃음 일이 많아진다. 64년생 깔끔한 뒷정리 기본으로 해야 한다. 76년생 애들한테 수고로 허락을 받아내자. 88년생 애만 하는 결심 후내라도 내보자. 00년생 친구였던 사이 애정으로 보여진다.</p>	<p>53년생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 하자. 65년생 월등한 솜씨로 경쟁에서 이겨내자. 77년생 근거 없는 허세 모양만 빠져간다. 89년생 세심한 준비로 낙점을 받아내자. 01년생 편견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p>
<p>54년생 급하지 마라, 기다림을 즐겨보자. 66년생 강행군을 마치고 실패를 짊어보자. 78년생 여러 번 이아기를 실천에 옮겨보자. 90년생 결치레 빼고 진심을 보여보자. 02년생 거역할 수 없으면 한편이 되어야 한다.</p>	<p>55년생 행복한 소식들이 가득 실려온다. 67년생 초라한 이익보다 신뢰가 우선이다. 79년생 소박한 바람이 현실이 되어준다. 91년생 쓰러진 세상 공부 입술을 물어보자. 03년생 듣기 싫은 간섭 경단임을 알아보자.</p>	<p>56년생 나이는 숫자다. 열정 꽃을 피워보자. 68년생 누구라는 이름 바뀐 값이 매겨진다. 80년생 애써 했던 고백 메아리가 되어간다. 92년생 끈끈한 동료애의 리로 옮겨보자. 04년생 아름다운 장면을 사진에 담아보자.</p>
<p>57년생 막연한 희망도 포기하는 금물이다. 69년생 첫눈에 반해지는 만남을 가져보자. 81년생 후회한 적이 없는 승부에 나서보자. 93년생 민망한 결과 한숨이 커져간다. 05년생 부듯한 성취감 자랑으로 남겨진다.</p>	<p>58년생 달콤한 호사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70년생 넉넉한 결실 부자곳간이 되어간다. 82년생 땀 흘린 노동이 기적을 더해준다. 94년생 눈치도 빠르게 분위기에 적응하자. 06년생 맛있는 성공으로 기대에 부응하자.</p>	<p>47년생 빈수레 요란함들은 착안책해보자. 59년생 길으로 가칠하고 속으로 다정 하자. 71년생 낯선 장소에서 주인공세 해보자. 83년생 얼굴에 환한 미소 기운도 날아간다. 95년생 반값이다. 나선자리엔지 조리해진다.</p>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